



창업기업 5년째 감소 年100만개 붕괴 우려

중기부, 연간 창업기업 동향
작년 113만5561개, 전년비 4% ↓
2020년 148만4667개 정점 후 하락
숙박·음식점·부동산 등 감소 영향
기술기반 창업 22만1063개 '양호'

창업기업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5년째 줄어드는 등 침체에 본격 접어들어 가는 모습이다.

한때 연간 150만개에 육박했던 창업기업(법인+개인)은 자칫 100만개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은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만7344개(4%) 줄었다.

이같은 감소 추세는 정점을 찍었던 2020년(148만4667개) 이후 계속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창업기업 숫자는 141만7973→131만7479→123만8617→118만2905→113만5561개로 내림세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111만1718(2022년)→111만1932(2023년)→106만7127(2024년)→103만298개(2025년)로 하락세가 다소 완만한 모습이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창업기업 숫자 통계를 내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119만177→125만6267→134만4366→128만5259개로 등락을 거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기업 숫자가 줄어 들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학적 이유 외에 뚜렷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월별로 부침은 있지만 장기추세로는 창

업이 줄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이 전년보다 4%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금융보험업(25.9% ↑), 정보통신업(17.5%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 ↑) 등 전문 지식 분야 업종 창업이 늘었다. 하지만 전기가스중기업(29.2% ↓), 숙박음식점업(11.8% ↓), 부동산업(9.1% ↓) 등의 감소가 전체 숫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감소는 외식산업 경기 침체, 카페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특히 음식점업 창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2024년 대비 2025년 현재 한식일반음식점은 6만3217→5만5605개, 커피전문점은 1만8887→1만5504개로 각각 하락했다.

창업기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술기반창업은 양호한 모습이다. 지난해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포함한 기술창업은 22만1063곳으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술창업은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1%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 9.3% 늘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편 작년 연령대별 창업 동향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줄었다. 창업 감소율이 가장 적은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대비 2.1% 하락하는데 그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제철, 탄소 20% 줄인 강판 양산

전기로·고로 복합공정 20% 감축

현대제철이 전기로 운영 노하우와 고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로·고로 쇠물을 배합하는 '전기로-고로 복합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해 기존 고로 제품 대비 탄소배출량을 20% 줄인 탄소저감 강판을 개발하고, 지난 2월부터 양산을 시작해 판매 확대에 나섰다

2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당진제철소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생산성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복합 공정 가동에 앞서 공정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고객사 평가와 강종 승인 절차를 병행해 양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탄소저감 강판 2종을 포함해 총 25종의 강종 인증을 완료했다.

이번 양산 체제 가동은 현대자동차그룹 완성차 업체의 탄소저감 로드맵에 맞춘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부터 탄소저감 철강재를 국내 및 유럽 생산 차종에 일부 적용할 계획이며, 현대제철은 해당 공장에 공급되는 주요 자동차 강판을 탄소저감 제품으로 전환해 적용 강종과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dhale@metroseoul.co.kr

김기문 “中企 전성시대, 함께 열어가자”

**중기중앙회, 여의도서 정기총회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0명 참석
사업계획·예산 등 5건 안건 의결
우수 협동조합 선정… 유공자 포상**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6일 “올해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코스피가 5000을 찍고 6000을 돌파했고 지수 상승률은 세계에서 1등이다. (지



난해)수출도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어 일본을 제치고 5위가 되는 등 대한민국 위상이 정말 높아졌다. 아쉬운 점은 이런 성과들이 일부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련 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사업 보고·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정관 개정안 ▲이사회 위임안 ▲임원 선출안 등 안건 5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맹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전남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부산경남연식공공업협동조합 ▲전북공업협동조합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김승호 기자

최진식 “성장사다리 중심 중견기업, 책무 다하겠다”

**중견련, 신라호텔서 정기총회
사업계획·예산안 등 안건 의결
‘회원사 현장 방문’ 프로젝트 추진**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26일 “개별 기업의 ‘이기’를 벗어나 벤처와 중소기업 발전을 견인하고 대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의 ‘중심’으로서 책무를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 중견련 정기총회'에서 “국가 혁신 어젠다를 선도하는 대표 경제단체 위상 강화”를 목



표 제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성공적인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재점화된 관세 혼란을 극복하고 코스피 활황, 역대 최대 수출이라는 낭보를 기업 펀더멘탈 강

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견기업계는 물론 경제대도약을 위한 산업계 전체의 총력을 기반으로 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회복시킬 법·제도·정책 환경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26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승호 기자

KG에코솔루션, 바이오 선박유 사업 확대

내달 울산 신공장 본격 가동
글로벌 BMF 생산·수출거점 구축

KG에코솔루션이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에 맞춰 바이오 중유·선박유(BMF)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 수요 대응하며 실적 상승세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KG에코솔루션은 다음달 울산 신공장 가동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선박유 시장을 선점,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2배 높은 1875억원으로 잡았다.

KG에코솔루션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울산공장 가동 계획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1월 취임한 박생근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섰다.

박생근 대표이사는 “2026년은 내수 중심 사업 구조에서 글로벌 수출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적 변곡점”이라며 “외형적인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구조적인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KG에코솔루션의 실적은 밀양공장 단일 사업장에 기반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누적 별도 매출은 750억원이며, 연간으로는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제주 발전소 등에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납품하는 등 내수 사업 비중이 큰 상황이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생근 KG에코솔루션 신임 대표가 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울산 신공장은 글로벌 BMF 확장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026년부터 EU ETS(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해운업에 100% 적용되면서 해운사의 친환경 대체연료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실패 경험을 ‘성공 자산’으로 전환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운영협의회 개최
‘재도전응원본부’ 본격 가동
정보·네트워킹 등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실패 경험’을 ‘성공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 재도전응원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20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빌딩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26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열고 올해 재도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재도전응원본부의 첫 공식 운영 협의회로, 총괄 본부를 맡고 있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주재하고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중진공과 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이 함께 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재기를 준비하는

기업인에게 정보 제공·네트워킹·정책 연계를 종합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다. 참석자들은 올해 재도전 지원 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검토했다.

중기부는 재도전응원본부를 중심으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기 문화 정착을 위해 ▲재도전 사례를 확산하는 실패콘서트 ▲실패 경험자와 일반인이 공감하는 힐링캠프 ▲폐업·재창업 경험을 나누는 재도전커뮤니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